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한국 문화정책 연구 경향 분석*

박상언**·이병량***

이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1989년 이후 한국에서 이루어진 문화정책 연구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근 정보 공학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통계적인 패턴의 학습을 통해 텍스트의 분류와 군집화, 개념의 추출, 감성분석, 문서 요약 등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분석의 대상이 된 연구 성과물은 1989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학 분야의 학술지 12군데에 게재된 다문화정책을 포함한 문화정책 관련 논문 283편으로 국한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한다면 한국의 문화정책 연구는 적어도 이 연구의 대상이 된 학술지를 기준으로 후속연구세대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문화정책의 세부 주제와 관련해서도 분석을 통해 추출된 세부 영역의 연구는 감소되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물론 연구자나 연구 주제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연구가 축적과 심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통계적 패턴의 발견을 통해 내용 분석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어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질 행정학 혹은 정책학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실무적인 차원에서 유효한 정책 제언을 위해 앞으로 개발하여야 할 다양한 연구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논문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본문 전체를 텍스트 자료로 추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가 정리한 분석의 결과는 좀 더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문화정책, 문화정책 연구, 텍스트 마이닝

* 이 논문은 2017 경인행정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2017.10.27.)에서 발표한 같은 논문의 제목을 발전시킨 것이다. 학술대회의 토론을 통해 논문의 발전에 도움을 준 동료 연구자들과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준 익명의 심사위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한다.

** 경기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부교수

***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교신저자)

I. 들어가며

어떤 학문 분야 혹은 그 세부 영역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낯선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시도는 물론 그 분야의 연구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온축되어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일이다. 일정한 수준의 학문적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 학문 영역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는 이유는 우선 기존의 연구가 쌓아온 업적을 확인하고 평가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일은 평가를 통해서 그 분야의 연구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전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제언하는 것이다.

물론 행정학 혹은 정책학의 영역에서도 이런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2016년 한국행정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행정학보》가 특집으로 기획한 한국행정학 연구 60년도 이러한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이론, 정책학, 지방행정, 재무행정 등 행정학의 주요 분야의 연구 경향을 분석한 이 기획도 정용덕(2016)이 밝혔듯이 “지난 60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 내용을 총정리하고 성찰해보기 위한 것”인 동시에 “앞으로 한국 행정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었다. 기획 연구가 아니라도 개별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 경향에 대한 분석은 꾸준히 시도되었다. 한국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도 전이었던 1985년 한인숙(1985)에 의해 시도된 지방자치행정 연구 경향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시도가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연구 경향 분석은 권경득(1996)이나 주상현(2002)과 같이 《한국행정학보》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한국 행정학의 연구 경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고 하태권(1995)이나 김귀영(2011)과 같이 특정 정책 영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윤견수(2005)나 허만형(2009)은 이런 시도들과는 차별적으로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행정학 혹은 정책학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최영출·박수정(2011)과 홍형득(2015)에 의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한국의 행정학이나 정책학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문화정책의 영역에서도 연구 경향 분석 시도는 꾸준히 존재해왔다. 1989년 정홍익의 “문화행정 연구”가 《행정논총》에 발표된 이후 1990년대 이후 문화행정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 역시 행정학의 한 세부 영역으로 자리 잡아왔다.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박광국·채경진(2008)이 문화행정 60년에 즈음하여 연구논문, 학위논문, 저서 등을 중심으로 문화정책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어 임학순(2009)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학술연구와 더불어 정부의 문화정책관련 공공기관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순복(2013)은 행정학 분야의 학술지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게재된 문화정책 관련 논문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같은 해 채경진(2013)은 행정학 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문화정책 관련 논문 245편을 대상으로 연구 경향의 분석을 시도하였고, 김정

수(2016)는 한국 행정학 60년을 맞이하여 연구논문, 학위논문, 저서를 망라한 연구 경향의 분석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당연히 문화정책 분야 연구 경향 분석은 문화행정 혹은 정책연구를 꾸준히 수행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를 충분히 가진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 결과 연구 성과물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정책 연구는 기존의 성과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 분야에 정통하지 않은 다른 연구자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석이나 평가의 기준을 전제한 것이기도 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지닌 분석 및 평가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였다. 최근 정보 공학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통계적인 패턴의 학습을 통해 텍스트의 분류와 군집화, 개념의 추출, 감성분석, 문서 요약 등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문화정책 연구 경향 분석에 적용한다면 기존의 연구 경향 분석 성과들과는 차별적으로 연구의 내용에 대한 통계적인 패턴의 발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수행된 문화정책의 연구 경향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자 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근거를 두고 기존의 연구 경향 분석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분석의 대상과 방법

이 장에서는 연구의 분석 대상인 문화정책에 대해 정의한다. 문화정책의 개념 정의에 근거하여 실제로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된 연구 성과물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화할 것이다. 그 다음 분석의 방법으로 사용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소개할 것이다.

1. 분석의 대상으로서 문화정책

문화정책에 대한 정의는 문화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순복(2013)은 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 대해 소개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정의 없이 연구가 진행되기도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정부의 문화주무부서도 공보나 방송의 영역을 담당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체육과 관광을 중요한 업무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기도 하다(이병량, 2004). 또한 전통적으로 한국어나 종무와 같은 영역은 문화주무부서의 주요 업무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 업무가 문화주무부서의 주요 업무로 자리 잡은 시기도 존재하였다(이병량, 2006).

현실 정책의 복잡다기한 양상은 기본적으로는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지적했듯이 문화라는 개념이 지니는 다의성과 복잡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Williams[설준규·송승철], 1984).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대상으로서 문화는 협의로는 현실적으로 예술을 의미하는 인간의 감정이나 관념의 미적 표현으로 정의되는 한편 광의로는 삶의 양식(way of life)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태도·관습의 총합으로 정의되고 있다(이병량, 2004; 김정수, 2016). 이병량·황설화(2012)는 “문화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영역으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미의식, 사상, 감정 등이 드러나는 영역”이고, “정책으로서 문화의 영역에 개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의식과 사상, 감정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문화정책의 구체적인 대상 영역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서순복(2013)은 문화정책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문화정책은 ‘문화영역’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정책수단을 연계하는 문화정책 당국의 공식적 지침이라고 정의된다. 이런 관점은 정의의 형태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정책을 ‘문화부문’에 대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활동이라고 한정하는 임학순(2009)의 연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정책의 구체적인 대상 영역 규정을 위해서는 문화의 영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시도는 배관표·이민아(2013)의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예술의 본성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디키(Dickie, 1984)의 논의를 원용하여 문화정책의 영역을 정의하고자 하고 있다. 디키(Dickie, 1984)는 예술의 본성을 설명하면서 예술이 예술가, 예술작품, 향유자 그리고 예술가와 향유자를 예술작품을 매개로 연결하는 예술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배관표·이민아(2013)는 이런 주장에 착안하여 문화영역도 문화의 형성자와 향유자와 이를 연결하는 문화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고 문화정책은 문화영역의 주체들과 이들의 관계에 직접·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라고 본다. 그렇다면 문화정책의 구체적인 대상은 행위자를 매개하는 다양한 수단, 즉 재정적인 수단 혹은 그 근거가 되는 예산, 매개의 장으로서 문화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도 예산과 시설을 포함한 문화영역에 대한 개입을 연구의 주제로 하는 다양한 연구 성과물로 한정지을 수 있다.

그런데 문화정책에 대한 정의와 연결되어 다루어져야 할 또 하나의 정책영역은 다문화현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정부의 개입이다. 다문화정책은 어떤 의미에서 미의식이나 그와 관련된 사상, 감정이 일차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문화정책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정책 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가 기본적으로 ‘삶의 방식’으로 정의되고, 또 그 본질을 다양성으로 이해한다면 다문화정책 역시 문화정책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문화정책은 삶의 다양성과 그 발현 형태로서 다양한 소수

적 견해나 취향, 성향 그리고 이를 지닌 집단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기 때문이다(이병량, 2011). 문화정책에 대한 확장된 이해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한국의 행정학 혹은 정책학 분야에서 축적된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연구 성과물 역시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2. 분석 대상 연구 성과

이 연구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정부의 문화 영역에 대한 개입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연구 성과물, 즉 문화정책 관련 연구 성과물을 기본적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문화의 본질인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으로서의 다문화정책 역시 문화정책의 한 영역으로 보고 관련한 연구 성과물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연구 성과물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된다. 그 이유는 이 연구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연구 경향을 분석하기 때문이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학위 논문이나 저서의 경우에는 텍스트 자체가 너무 방대하여 의미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을뿐더러 기술적인 한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다문화정책을 포함한 문화정책 관련 논문을 분석의 대상으로 정했다. 그리고 그 학술지의 범위는 채경진(2013)이 제시하고 김정수(2016)가 그대로 수용한 것을 따랐다. 채경진(2013)은 문화정책 연구 경향을 분석하면서 행정학에서 문화정책 관련 연구가 최초로 소개된 《행정논총》을 포함하여 2012년 말을 기준으로 등재연도가 최소 5년이 지난 행정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¹⁾. 그리고 이 기준을 김정수(2016) 역시 그대로 수용하였다. 대학에서 발간된 학술지를 제외하면서 《행정논총》을 포함시킨 점을 비롯하여 이 기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 기준을 그대로 수용한 이유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연구 경향의 분석을 기존의 두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²⁾.

1) 이 학술지들은 《행정논총》,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논집》,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지방행정연구》, 《지방정부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이다.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문화정책논총》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행정학 혹은 정책학 연구자들의 참여가 거의 없고, 따라서 행정학적 혹은 정책학적 관점의 연구와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1〉 연도별 학술지별 문화행정 연구 논문 현황

연도	정책분 석평가 학회보	지방정 부연구	지방행 정연구	한국거 버넌스 학회보	한국사 회와행 정연구	한국정 책과학 학회보	한국정 책학회 보	한국지 방자치 학회보	한국행 정논집	한국행 정연구	한국행 정학보	행정 논총	합계
1989	1	1
1990	.	.	1	1	2
1991	2	.	2
1992	0
1993	1	1
1994	1	.	1
1995	0
1996	.	.	2	1	1	.	.	4
1997	1	1
1998	1	.	.	.	1
1999	.	1	.	.	1	.	1	1	2	.	2	.	8
2000	1	1	.	.	1	3
2001	.	.	.	1	1	.	1	1	1	.	.	.	5
2002	2	2	2	.	1	3	1	11
2003	.	2	.	1	4	5	1	3	3	.	1	.	20
2004	2	2	.	.	5	5	2	2	2	.	2	1	23
2005	1	3	.	.	2	.	1	.	2	.	.	.	9
2006	.	2	1	2	3	.	2	.	1	1	1	2	15
2007	1	.	2	2	1	.	1	1	8
2008	.	2	.	2	4	1	.	.	1	.	6	2	18
2009	.	2	1	.	4	3	1	1	1	1	.	2	16
2010	2	3	.	1	2	.	1	1	4	1	1	1	17
2011	1	3	1	2	6	1	1	2	1	1	1	1	21
2012	1	5	1	1	5	3	2	1	.	.	1	2	22
2013	1	4	1	1	1	1	5	1	4	1	2	.	22
2014	2	1	1	3	1	.	2	2	.	.	1	.	13
2015	1	3	2	2	3	1	1	.	9	1	3	.	26
2016	.	5	1	1	.	.	3	.	.	1	1	1	13
계	12	38	14	19	45	22	27	19	34	9	28	16	283

〈표 1〉에서 보듯이 1989년 이후 2016년까지 주요 행정학 학술지에 게재된 문화정책 연구 논문의 총 수는 283편이었다³⁾. 합계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정책 2002년 최초로 10편이 넘게 게재

3) 〈표 1〉에서 정리된 문화정책 연구 논문 현황은 분석 대상 학술지의 논문에서 문화정책 연구 논문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위에서 인용한 채경진(2013)과 김정수(2016) 연구에서 제시된 현황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된 문화정책 연구 논문은 약간의 부침이 있지만 2005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10편이 넘게 발표되고 있다⁴⁾. 이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적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이 모든 논문의 본문 전체를 자료로 추출하였다. 또한 논문의 주제어 역시 따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자료로 추출하였다. 그러나 일부 논문의 경우에는 본문 전체를 텍스트 자료로 추출할 수 없었다. 이 경우에는 초록을 텍스트 자료로 추출하거나, 일부 초록이 존재하지 않는 논문이 경우는 논문이 서론과 본론을 텍스트 자료로 삼았다. 이런 논문들은 전체 283편 논문 가운데 66편으로 23.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분석의 방법

최근 사회연결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등을 통해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들이 생산됨에 따라, 이러한 비정형적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은 기존의 정형적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마이닝과는 달리,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고수준의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Blei and Lafferty, 2009). 주로 통계적인 패턴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며, 텍스트의 분류와 군집화, 개념의 추출, 감성분석, 문서 요약 등이 대표적인 텍스트 마이닝 분야 혹은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저자별 논문 편수와 연도별 주제어별 논문 편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텍스트 마이닝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여 각 논문에 공통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연구주제들을 분석하고, 그 연구주제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연도별 저자별 논문 편수와 연도별 주제어별 논문 편수를 계산하기 위해, 최근 데이터 분석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도구 중 하나인 R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각 논문에 대하여 저자와 주제어들을 추출하여 정리한 후, R에서 제공하는 워드 테이블을 이용하여 연도별로 저자와 주제어에 해당하는 논문의 빈도를 계산하였다.

토픽모델링은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다수의 문서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주

루어졌다. 목록의 정리는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의 황설화양이 도와주었고, 확인 작업은 논문의 공동저자 2인이 수행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황설화양에게 감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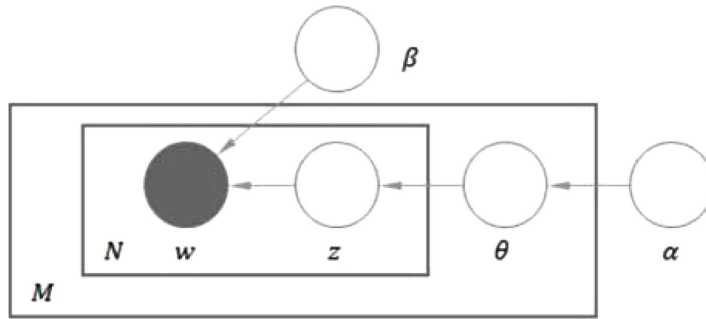
4) <표 1>에서 집계한 문화정책 논문 편수는 김정수(2016)의 연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이 연구와 김정수(2016)의 연구 사이에 문화정책 연구의 범위에 관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김정수(2016)의 연구에서는 2014년 《한국행정연구》의 문화행정논문 수가 5편으로 집계되어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견지에서는 2014년의 《한국행정연구》에서 문화정책 관련 논문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2014년 《한국행정연구》의 문화정책 연구 논문은 0편으로 집계하였고, 2014년 전체 문화정책 연구 논문은 김정수(2016) 연구의 18편에서 5편이 줄어든 13편으로 집계하였다.

제들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론이다(박상언, 2015). 본 논문에서는 발표된 논문들의 내용에 내재된 주제들을 추출하여 살펴보고, 주제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보기 위하여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였다. 토픽모델링의 기본적인 가정은, 저자들이 문서를 작성할 때 먼저 특정한 주제들을 정하고 나서 그러한 주제들로부터 문장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서를 구성하는 단어들은 그 주제들로부터 파생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토픽모델링은 문서와 단어들에 대해 통계적인 추론을 수행하여 본래의 주제들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어로 기술되어 있는 문서들에 대해 형태소 분석을 함으로써 문장들을 개별 단어로 분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R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KoNL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형태소 분석 후에는 기본적인 단어처리를 위해 TM 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토픽모델링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LDA(LatentDirichlet Allocation) 분석을 위해 R에서 제공되는 LDA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LDA는 Blei et al. (2003)에 의해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확률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문서의 토픽 분포를 추론한다. LDA에서 토픽은 주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각 문서들이 특정한 주제에 속할 확률분포와 주제로부터 특정 단어들이 파생되어 나올 확률분포가 주어졌을 때, 이 두 확률분포를 조합하여 각 문서들에 들어가는 단어들의 확률분포를 계산해낸다. <그림 1>에서 θ 는 문서들이 각 주제들에 속할 확률분포를 나타내며 디리클레분포의 매개변수인 <알파>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에서 N 은 특정 문서에 속한 단어의 집합이며, M 은 전체 문서의 집합을 나타낸다. z 는 문서 내의 단어들이 주제들에 속할 확률분포를 나타내며, 이는 θ 에 의한 다항분포로 선택된다. β 는 각 주제가 특정 단어를 생성할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분포이며, 결국 z 와 β 에 의해 실제 문서들의 단어분포인 w 가 결정된다. 이 모형에서 w 만이 실제로 문서들을 통해 주어진 분포이고 나머지는 모두 잠재변수이다. LDA 알고리즘에서는 주어진 문서와 토픽들의 사전확률 분포인 α 와 토픽 내에서 단어의 사전확률분포인 β 의 파라미터 값을 활용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z 와 θ 를 추정한다.

토픽모델링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및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데 자주 활용되고 있다. 박자현·송민(2013)은 문헌정보학 주요 학술지인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를 대상으로 197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초록을 수집하여, 토픽모델링을 통해 연구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문헌정보학의 주제분류표와 비교·분석하였다. 강범일·송민·조화순(2013)은 토픽모델링을 이용하여 대선에 대한 각 매체들의 입장을 분석하고 매체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기사를 보도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1〉 LDA



토픽 트렌드는 일정 기간 동안에 토픽들의 가중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연도 별로 그 연도에 출판된 논문들에 대해 토픽 트렌드를 계산하기 위해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하였다(Kim et al., 2015).

$$\varphi^{(t)} = \frac{\sum_{d=1}^{D_t} \theta^{(d)}}{D_t}$$

$\varphi^{(t)}$: 연도 t 의 토픽 분포

D_t : 연도 t 에 출판된 논문의 수

$\theta^{(d)}$: 논문 d 의 토픽 분포

위 공식은 결과적으로 그 연도에 출판된 논문들에 나타난 토픽들의 가중치 평균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해당 연도에 더 많은 논문에서 비중이 더 높게 다뤄진 토픽은 높은 가중치를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토픽들에 대해 그래프의 추세를 봄으로써 시간에 따른 토픽들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토픽 트렌드 또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박주섭·홍순구·김종원(2017)은 기존의 델파이 기법 대신 토픽모델링을 이용하여 미국 특허 문서들로부터 20개의 인공지능 세부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술들에 대한 관심의 증가 여부를 토픽 트렌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윤소연·윤동근(2017)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 분야의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여 27년간의 뉴스기사로부터 20개의 주요 주제를 도출한 후, 시계열 분석 즉 토픽 트렌드 분석을 수행하였다.

Ⅲ. 연구 경향 분석의 결과

이 장에서는 연구 경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평가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난 약 30여년간 이루어진 한국 문화정책 연구가 현재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를 전망할 것이다.

1. 문화정책 연구자

문화정책 연구자에 대해서는 게재된 논문의 편수나 영향력, 연구 활동의 분야뿐만 아니라 연구자 개개인의 연구에 대한 동료로서의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다(채경진, 2013; 김정수, 2016).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문화정책 연구자의 연구 활동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문화정책 연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단독과 공동을 포함하여 분석의 대상이 된 학술지에 문화정책 관련 논문을 5편 이상 쓴 저자는 12명이다. <표 2>는 이를 분석의 대상이 되는 가장 최근 년도인 2016년을 기준으로 5년 단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1989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정책 관련 논문을 가장 많이 게재한 학자는 서순복으로 18편이고, 박광국이 12편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김정수와 이병량이 각각 8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채경진과 한승준이 각각 7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표 2〉 5편 이상 저자 전체 연대별 논문 수 합

	1996년까지	1997~2001	2002~2006	2007~2011	2012~2016	총계
서순복	0	1	6	8	3	18
박광국	0	2	5	5	0	12
김정수	0	1	3	2	2	8
이병량	0	0	2	4	2	8
채경진	0	0	0	3	4	7
한승준	0	0	0	5	2	7
박진경	0	0	0	3	3	6
주호진	0	1	4	0	1	6
채원호	0	0	5	1	0	6
원숙연	0	0	0	3	2	5
이종열	0	0	3	2	0	5
임학순	1	0	3	0	1	5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5편 이상의 관련 논문을 게재한 주요 문화정책 연구자 가운데 가장 최근 5년인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의 게재 논문 수가 이전 시기에 비해 늘어난 연구자는 채 경진 1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이는 대부분의 주요 문화정책 연구자들의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 성과가 적어도 기존의 연구경향 분석 대상이 되었던 학술지의 범위 내에서는 이전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⁵⁾.

〈표 3〉 연대별 복수 논문 게재 저자 수

	1996까지	1997~2001	2002~2006	2007~2011	2012~2016	합계
5편 이상 저자	0	0	3	3	0	6
4편 이상 저자 (5편 포함)	0	0	7	4	4	15
3편 이상 저자 (4, 5편 이상 포함)	0	0	12	8	8	28
2편 이상 저자 (3, 4, 5편 이상 포함)	0	2	27	15	27	71

〈표 3〉은 위의 〈표 2〉와 같은 시간 범위를 기준으로 5년 단위로 복수의 논문을 발표한 저자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5년의 시간 범위를 놓고 보았을 때, 2002년에서 2006년까지의 기간과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각각 3명의 연구자가 5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왕성한 연구 활동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2012년에서 2016년까지의 5년의 기간 동안에는 5편의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왕성한 연구 활동을 벌이는 연구자 수의 감소 추세는 논문 편수의 범위를 4편 이상과 3편 이상의 저자로 확대하는 경우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4편 이상 저자의 경우나 3편 이상 저자의 경우 모두 2002년에서 2006년에 이르는 기간까지가 각각 7명과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에서 2011년에 이르는 기간까지나 2012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기간까지의 경우는 각각 4명과 8명으로 같다. 즉 5년 동안 3편 이상의 문화정책 논문을 발표하는 정도로 적어도 분석의 대상이 된 학술지의 범위에서는 왕성하게 연구 활동을 벌인 연구자의 수는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에 가장 많이

5) 이 연구가 행정학 관련 학술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해당 연구자들이 학술논문이 아닌 저서 등의 방식으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연구의 분석 대상 이외의 학술지에서 학술논문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 논문의 심사자 중 1인이 해당 연구자 중의 특정인들이 다른 학술지에서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정책 연구 분야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연구자군의 (기존 연구경향 분석에서도 공통적으로 다루어진 학술지의) 연구 성과가 다소나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경향이 한국 문화정책 연구의 성과 축적과 논의 심화의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해석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귀중한 지적으로 최초의 기고된 논문의 단정적인 해석들을 다시 돌아보고 보완할 기회를 준 심사위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밝힌다.

있었고,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다만 5년간 2편 이상 문화정책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로 범위를 확대하면 2012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가장 최근의 5년 기간 동안 이 27명으로 2002년과 2006년 사이의 기간과 같은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경향은 주요 저자들이 동일한 시간 범위에서 발표한 논문의 수를 통해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4>는 연대별 복수 논문 게재 주요 저자의 논문 수를 집계하고 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5편 이상의 문화정책 관련 논문을 게재한 주요 연구자의 연구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이다. 이 기간 동안 이들 저자들이 게재한 전체 논문의 수는 36편으로 이 전 시기인 2002년에서 2006년의 31편에 비해 소폭으로나마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시기인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이들 주요 저자들이 게재한 논문이 20편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주요 저자의 범위를 4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는데, 4편 이상 저자의 경우 2002년에서 2006년까지의 기간에 발표된 논문이 51편으로 가장 많았다가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44편으로 감소한데 이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40편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저자의 범위를 3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2002년에서 2006년까지의 기간 63편,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기간 53편, 2012년에서 2016년까지의 기간 44편으로 집계되고 있다. 다만 주요 저자의 범위를 2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2002년에서 2006년까지의 기간에 81편이었던 논문 수가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기간에는 66편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2년에서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다시 79편으로 전전 기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연대별 복수 논문 게재 저자의 게재 논문 수

	1996까지	1997~2001	2002~2006	2007~2011	2012~2016	합계
5편 이상 저자	1	5	31	36	20	93
4편 이상 저자 (5편 포함)	3	11	51	44	40	149
3편 이상 저자 (4, 5편 이상 포함)	6	13	63	53	44	179
2편 이상 저자 (3, 4, 5편 이상 포함)	7	14	81	66	79	247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문화정책 관련 주요 연구자군, 특히 5편 이상 문화정책 연구 성과를 게재한 연구자군의 경우에는 채경진을 제외하면 새로이 진입한 연구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 대상 학술지에 국한한다면 2010년 이후에 들어서면서 연구 성과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주요 연구자의 범위를 3편 이상 문화정책 연구 성과를 보인 연구자로 확대할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다만 2편 이상의 연구자의 경우 2012년에서 2016년까지의 기간 중에 새로 진입한 연구자의 수가 2002년에서 2006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도 그에 버금가게 활발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의 행정학 분야에서 1세대 문화정책 연구자들과 이후 세대 문화정책 연구자들 간의 세대교체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1세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시간적인 요인 등에 의해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와중에 이를 계승할 새로운 연구자군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2012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다시 2편 이상 문화정책 논문을 발표한 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정책 연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후보자군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5년이라는 기간을 전제했을 때, 2편이라는 연구 성과물이 그다지 두드러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2편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그 연구자의 연구 영역에 관한 정체성을 규정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세대교체의 상황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여겨진다.

2. 연구의 주제어

학술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은 연구자 스스로 자신의 연구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어떤 주제와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채웠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논문의 주제어를 통해서도 관련 분야의 연구가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

〈표 5〉는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논문들의 주제어 가운데 3회 이상 나타난 주제어를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추출된 주제어는 의미의 연관성에 따라 크게 네 가지의 범주로 정리될 수 있다.

〈표 5〉 3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

		1997~2001	2002~2006	2007~2011	2012~2016	총계
문화정책 일반	문화정책	1	15	11	2	29
	문화	0	6	2	2	10
	문화예산	0	3	1	2	6
	문화행정	0	3	1	1	5
	거버넌스	0	1	1	2	4
	문화거버넌스	0	2	2	0	4

	문화서비스	0	1	2	1	4
	문화이론	0	3	1	0	4
	문화민주주의	0	1	1	1	3
	문화복지	0	2	0	1	3
	문화행정연구	0	0	1	2	3
	소계	1	37	23	14	75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	0	0	12	5	17
	다문화정책	0	0	9	6	15
	다문화사회	0	0	4	2	6
	다문화	0	0	2	2	4
	다문화가족	0	0	1	3	4
	사회통합	0	0	1	3	4
	이민정책	0	0	3	1	4
	동화주의	0	0	2	1	3
	외국인정책	0	0	1	2	3
	소계	0	0	35	25	60
지역문화 및 지역문화축제	지역축제	0	6	1	3	10
	문화도시	0	0	4	4	8
	지역문화	0	2	1	2	5
	부천시	0	1	2	1	4
	문화관광	0	2	1	0	3
	문화마케팅	0	3	0	0	3
	문화행사	0	2	1	0	3
	장소마케팅	0	1	2	0	3
	지방정부	0	2	0	1	3
	지역문화정책	0	2	1	0	3
	지역발전	0	0	0	3	3
	소계	0	21	13	14	48
문화시설 운영	문화예술회관	0	3	0	1	4
	효율성	0	2	1	1	4
	문화시설	0	1	2	0	3
	문화재	0	0	2	1	3
	민간위탁	0	1	0	2	3
	성과평가	0	1	1	1	3
	정책평가	0	0	0	3	3
	소계	0	8	6	9	23

위의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추출된 주요 주제어 가운데 가장 많이 출현한 문화정책

일반에 관한 주제어이다. 특히 많이 사용된 주제어로는 ‘문화정책’, ‘문화’이고, ‘문화예산’, ‘문화행정’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런데 문화정책 일반에 관한 주제어는 현격하게 그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문화정책 연구 초기에는 정책의 범위 등을 확정하기 위한 개념 규정을 위해서 많이 다루어졌던 ‘문화정책’, ‘문화’, ‘문화행정’ 등의 주제어가 연구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이론’, ‘문화민주주의’, ‘문화복지’ 등 문화정책의 이론화와 관련된 주제어들은 상대적으로 빈도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빈도의 감소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화정책’이나 ‘문화’의 개념에 대한 논의도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문화정책 연구가 이론화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음을 확인시켜주기도 한다.

그 다음으로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 것은 다문화정책 관련 주제어이다. 다문화정책 관련 주제어는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시기에 처음 등장하였다. 특히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은 전체적으로 17회, 15회나 주제어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문화정책’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횟수로 2007년 이후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연구도 2012년 이후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전 시기에 비해 현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역시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다문화사회’ 등 개념의 정의를 위한 주제어들이 연구의 진전에 따라 덜 다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외국인정책’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대상이나 지향에 대한 주제어가 다소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빈도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역시 동시에 확인되고 있다.

다음 범주는 지역문화 및 지역문화축제에 관한 주제어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전략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문화를 통한 도시의 발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문화축제 등의 활성화는 그 구체적인 세부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정책 관련 연구 보다 이른 시기인 2002년에서 2006년까지에 이르는 기간에도 지역문화 및 지역문화축제에 관한 주제어인 ‘지역축제’, ‘문화마케팅’, ‘지역문화’, ‘문화행사’, ‘지역문화정책’ 등이 다루어졌다. 그러나 지역문화 및 지역축제에 관한 주제어 역시 이후의 시기에 점차로 빈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기간에는 2회 이상의 빈도를 보인 주제어는 ‘문화도시’, ‘부천시’, ‘장소마케팅’ 등 3개 밖에 없었고, 2012년 이후 2016년까지의 기간에도 ‘지역축제’, ‘문화도시’, ‘지역문화’, ‘지역발전’ 등 4개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전체의 빈도도 현격하게 감소하여 2007년에서 2016년까지에 이르는 10년의 기간 동안 나타난 지역문화 및 지역문화축제에 관한 주제어 전체 수가 27회로 2002년에서 2006년까지에 이르는 5년 기간의 21회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시설 운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주제어의 범주이다. 문화시설은 문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건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웨어 자체가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이를 통한 성과의 달성이 중요하다는 관점이 제기되면서 관련 연구들도 꾸준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제어의 빈도수의 변화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2002년에서 2006년까지의 기간에 가장 두드러졌던 주제어가 ‘문화예술회관’이었던데 반해 2012년에서 2016년까지의 기간에 가장 눈에 띄는 주제어는 ‘정책평가’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문화시설 운영과 관련된 주제어도 이전의 다른 주제어 범주들에 비해 빈도가 현격하게 낮은 수준인데다가 뚜렷한 증가세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결국 주제어를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은 문화정책 연구가 주요 범주에서 모두 연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2002년에서 2006년까지의 기간을 정점이었다는 점이다. 예외적으로 다문화정책 관련 연구는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의 기간에 처음 나타나 폭발적으로 연구가 되었지만 그 추세 역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문화정책 연구의 주제가 다변화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정책 연구의 길지 않은 역사를 감안했을 때, 주요 범주를 중심으로 연구 자체의 심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 주제가 분산되는 경향은 마냥 바람직한 것으로만 평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3.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한국 문화정책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연구논문의 내용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한국 문화정책 연구 논문 전체에서 의미가 연관되는 용어들로 연결된 15가지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 가운데 세 가지의 주제는 가령 ‘위하’, ‘통하’, ‘활용’, ‘제공’이나, ‘대하’, ‘경우’, ‘나타나’, ‘따라’ 혹은 ‘권한’, ‘조선’, ‘편향’ 등 일반적인 용어들이 중첩되어 사용된 것이 동일한 주제의 군으로 묶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를 제외한 12가지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들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주제는 ‘V2’ 항목으로 묶인 문화정책 일반에 관한 것이다. 이 항목에는 ‘문화’, ‘문화정책’, ‘문화행정’ 뿐만 아니라 문화정책의 세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산’, ‘문화복지’, ‘문화예술’, ‘문화산업’ 등이 망라되어 있고, 또한 문화정책의 목표 혹은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향유’, ‘문화향수’, ‘문화수준’, ‘문화활동’ 등의 용어들이 함께 포함되어있다.

〈표 6〉 문화정책 연구 내용 주제

번호	토픽 제목	토픽 내용	비중
V1	다문화정책 일반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외국, 사회, 외국인, 다문화사회, 이민자, 이주민, 차별, 결혼이민자, 다양성, 동화주의, 태도, 인정, 소수자, 사회통합, 거주, 이주, 국적	0.047
V3	계량 연구	영향, 미치, 요인, 변수, 긍정적, 가설, 통계적, 문화, 유의미한, 만족, 측정, 검증, 종속변수, 대응성, 변수들, 신뢰성, 독립변수, 선행연구, 척도, 분석결과	0.043
V5	지역문화 축제	축제, 지역축제, 마케팅, 이벤트, 행사, 개최, 만족, 방문객, 관광, 지역문화행사, 지역주민, 문화마케팅, 고객, 방문, 문화수, 관람객, 문화관광, 홍보, 주제, 관광객	0.036
V10	문화도시 전략	지역, 도시, 문화적, 문화도시, 발전, 장소마케팅, 주민들, 전략, 지역발전, 창출, 이미지, 부천, 조성, 지역경제, 주민, 부천시, 문화영향평가, 관광객, 글래스고우, 공간	0.035
V2	문화정책일반	문화, 문화정책, 문화행정, 문화예산, 문화예술, 문화복지, 메세나, 문화향유, 영역, 문화시설, 문화향수, 국민, 향유, 문화관련, 문화수준, 문화재, 진흥, 문화활동, 문화환경, 문화산업	0.034
V8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	가족, 교육, 적응, 여성, 자녀,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한국어, 결혼, 한국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국제결혼, 출신, 한국사회, 건강, 부부, 베트남, 취업, 언어	0.029
V6	지방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운영, 효율성, 공연장, 지방자치단체, 운영주체, 문예회관, 가동률, 문화예술기관, 기초자치단체,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수익률, 공연, 문화시설, 위탁, 전당, 운영성과, 자치단체, 문화서비스	0.027
V15	문화예술 기관	정부, 법인화, 보조금, 위원회, 설립, 정책문제, 문화예술정책, 문화예술분야, 현금거래, 예술의, 노무현, 공공성, 서울시향, 대통령, 지식정보자원, 이해관계자들, 비영리, 제회, 이명박, 신념체계	0.027
V13	문화산업 정책	문화산업, 산업, 애니메이션, 문화원형, 경쟁력, 콘텐츠, 게임, 생산, 문화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창작소재, 문화상품, 제품, 산업적, 상품, 업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거래	0.023
V9	영화산업 정책	영화, 영화산업, 미국, 규제, 한국영화, 정책변동, 보호, 영화정책, 당시, 부산국제영화제, 이데올로기, 스크린쿼터, 정책레짐, 자국, 이익집단, 장관, 한국과, 외규장각, 환수, 문화외교	0.022
V12	문화재 정책	문화재, 문화자본, 문화유산, 문화자원, 유적지, 고인돌, 민속, 계산, 동화사, 보존, 문화재행정, 신라문화권, 무형문화재, 할인율, 문화재청, 지불의사금액, 반환, 공공재, 커뮤니티웰빙, 건립정책	0.017
V7	문화예술교육정책	학교, 문화예술교육, 주민자치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문화예술교육, 문화교육, 전통공연예술, 강사, 교육부, 정책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정책, 교육청, 시범사업, 문화복지, 성과지표, 예술강사, 실천목표, 김유정, 예술교육, 거버먼트	0.017

한편 ‘V7’, ‘V9’, ‘V12’, ‘V13’, ‘V15’ 항목에서는 세부 문화정책 영역이 드러나고 있다. ‘V7’ 항목은 문화예술교육정책이 문화정책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학교나 주민자치센터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정책의 성격을 반영 하듯이 이 항목에서는 ‘학교’, ‘교육부’, ‘교육청’, ‘주민자치센터’ 등의 용어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정책’, ‘예술강사’, ‘강사’ 등의 발견되고 있다. 또한 ‘문화복지’나 ‘정책네트워크’와 같이 이 정책의 목표나 집행 방식을 확인시켜주는 용어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연구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하게 해주고 있다. ‘V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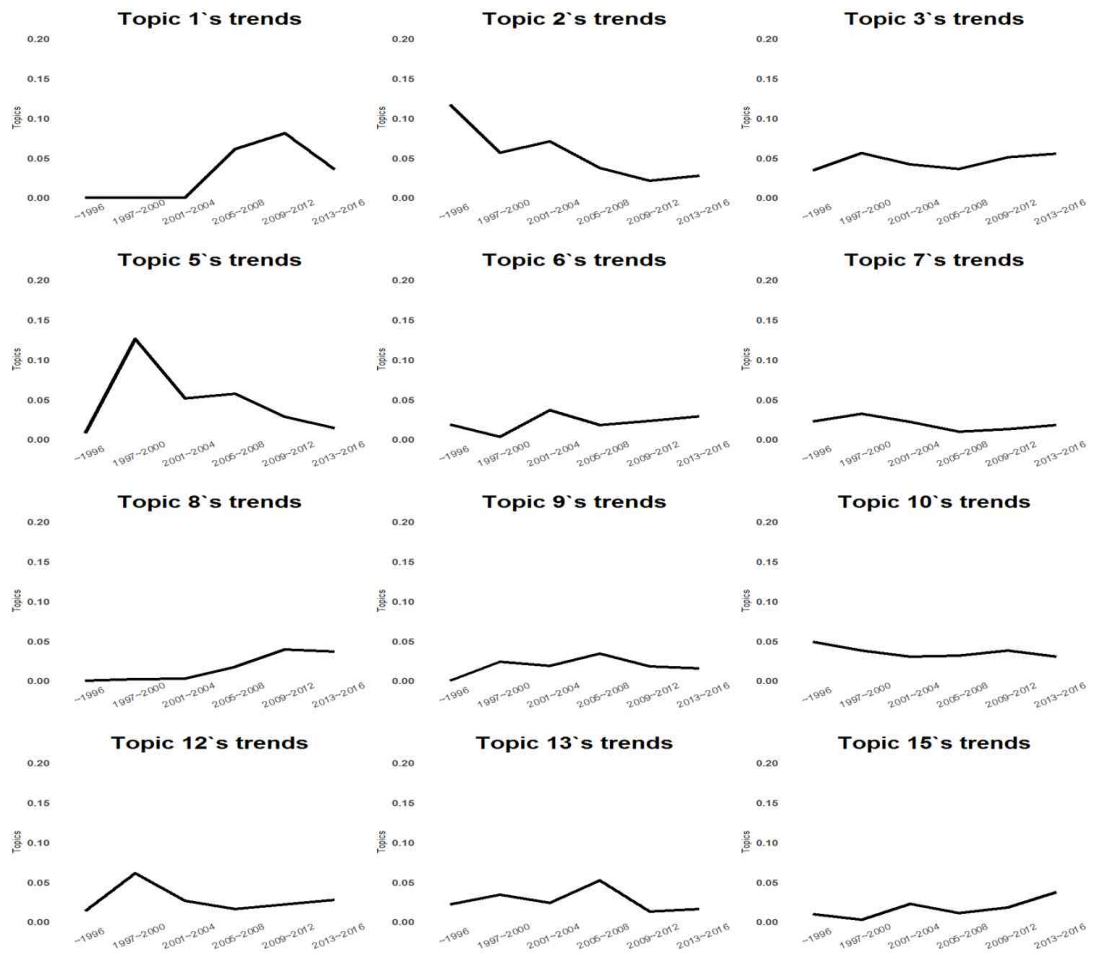
항목은 문화정책 연구에서 영화 혹은 영화산업 정책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음을 확인시켜준다. ‘한국영화’, ‘스크린쿼터’, ‘규제’, ‘보호’ 등의 용어는 영화산업 정책이 어떤 관점에서 다루어졌는지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V12’ 항목은 문화재 정책 역시 문화정책의 중요 영역이고, 또 그만큼 문화정책 연구에서도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임을 드러내 보여준다. ‘문화재’, ‘문화유산’, ‘문화자원’의 용어와 함께 발견되고 있는 ‘공공재’, ‘보존’, ‘반환’ 등의 용어는 문화재 정책의 지향과 더불어 관련 연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준다. ‘V13’ 항목은 문화산업정책 역시 문화정책 연구에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해왔음을 알게 해준다. ‘문화산업’, ‘애니메이션’, ‘콘텐츠’, ‘문화콘텐츠’, ‘게임’ 등과 같이 문화산업정책의 구체적인 정책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용어와 함께 ‘경쟁력’, ‘생산’, ‘문화상품’, ‘산업적’, ‘육성’ 등은 문화산업정책이 어떤 관점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었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V15’ 항목은 다소간 판단을 유보하게 하는 혼란이 존재하지만 문화예술 기관들에 관한 주제인 것으로 해석된다. 가령 ‘법인화’, ‘비영리’, ‘보조금’, ‘서울시향’, ‘설립’ 등의 용어는 그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항목에서 ‘정부’, ‘대통령’, ‘노무현’, ‘이명박’ 등의 용어도 동시에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정책 연구에서 문화예술 기관이라는 주제는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주제들이 주로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을 다룬 것이라고 한다면 ‘V5’, ‘V6’, ‘V10’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화정책과 관련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5’는 지역의 문화축제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주요 연구주제가 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마케팅’, ‘문화마케팅’, ‘홍보’, ‘방문’, ‘방문객’, ‘만족’, ‘관광’, ‘문화관광’, ‘관광객’ 등 이 주제에 연관되어 나타나는 용어들은 지역축제 관련 연구들이 주로는 문화축제의 관광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V10’은 구체적인 문화축제 보다는 지역발전의 전략으로서 문화도시에 관한 논의가 문화정책 연구의 한 경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도시’, ‘지역’, ‘도시’, ‘발전’, ‘지역경제’, ‘지역발전’, ‘전략’ 등의 용어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관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부천’, ‘부천시’, ‘글래스고우’는 이와 같은 연구에서 문화도시로서의 부천이나 글래스고우의 사례가 매력적인 소재였음을 확인시킨다. ‘V6’는 이와 다른 맥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문화예술회관’ 혹은 ‘문화회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에서 ‘운영’, ‘운영주체’, ‘민간위탁’ 등의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혹은 ‘효율성’, ‘가동률’, ‘수익률’, ‘운영성과’ 등의 성과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문화정책 연구에서도 하나의 경향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뚜렷한 경향을 형성하고 있는 주제는 다문화정책이다. 다문화정책 관련 주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 묶음으로 구별되었다. 먼저 ‘V1’ 항목으로 묶인 주제는 다문화정책 일반에 관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다문화정책 일반에 관한 주제는 전체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일 정도로 두드러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다문화사회’, ‘다양성’, ‘동화주의’, ‘사회통합’, ‘인정’ 등의 용어들의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용어들은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정책의 지향을 제시하거나 관련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V8’ 항목으로 묶인 주제에서는 ‘결혼이주여성’, ‘가족’, ‘교육’,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국제결혼’, ‘한국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용어들이 연관되어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정책 연구들이 다룬 구체적인 정책이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수요가 발생한 다문화가족 정책이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림 2〉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문화정책 연구의 경향은 'V3'에서 정리되고 있다. '선행연구', '가설', '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요인', '측정', '검증', '신뢰성', '분석결과'는 계량 연구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로 이러한 용어들이 하나의 주제로 분류되었고, 빈도에 있어서도 다문화정책 일반에 관한 주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방법론으로서 계량 연구가 문화정책 연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제들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림 2>는 이들 주제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다루어졌는지를 4년 단위의 시간으로 구분하여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문화정책 관련 연구주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반적으로 빈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완만하게나마 빈도의 상승 추세가 나타나면 그 추세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주제는 'V3', 'V6', 'V15'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없이 문화예술회관 혹은 문화예술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이나 주제와 관련 없이 계량 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도 확인되고 있다.

한편으로 추세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주제는 'V1', 'V2', 'V5', 'V12', 'V13' 등이다. 이 가운데 더욱 극적인 하락의 추세가 나타나는 것은 문화정책 일반에 관한 주제(V2)와 지역문화축제(V5) 관련 주제이다. 또한 문화재 정책 관련 연구(V12)나 문화산업 정책 관련 연구(V13)도 문화정책 연구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다문화정책 관련 주제인데, 2000년대 초반 이후로 급속도로 확대되었던 다문화정책 일반(V1)에 관한 연구가 매우 짧은 시간 만에 연구의 빈도가 급격히 감소되는 한편 완만하게나마 증가 추세를 보였던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다문화정책 연구(V8) 역시 가장 최근의 시점에 들어서서는 다시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외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V7)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 영화 혹은 영화산업정책 관련 연구(V9)는 2005년에서 2008년까지의 기간을 정점으로 연구의 빈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도시 등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V10)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는 주제별로 보았을 때, 문화예술시설 혹은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을 뿐 대부분의 주제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빈도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제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한편으로는 연구의 진전과 함께 주제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정책 연구의 길지 않은 역사를 고려한다면 연구의 심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새로운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문화정책이나 지역문화축제, 문화산업정책 등의 연

구의 급격한 감소세는 문화정책 연구가 사회의 수요에 반응하여 유행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IV. 마치며

이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1989년 이후 한국에서 이루어진 문화정책 연구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려는 시도였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연구 성과물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그간의 연구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적용을 통해 이 연구는 한국의 문화정책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주제들을 발견하고 그간의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문화정책 연구의 현재를 보다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분석의 결과 한국의 문화정책 연구는 문화정책 연구를 자신의 주요한 연구의 주제로 삼는 연구자군에 새로운 연구자의 진입이 눈에 띄게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대상이 된 학술지에 국한하자면 기존의 주요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되는 상황에서 문화정책 연구 성과를 꾸준히 내는 새로운 연구자들의 진입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문화정책 연구 성과의 축적과 논의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주의 깊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후속 세대의 활발한 진입은 전체 문화정책 연구를 더욱 풍부하게 할 중요한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정책 연구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문화정책 연구는 문화정책 일반, 다문화정책, 지역문화 및 지역문화축제, 문화시설 운영 등의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주제어들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시설의 운영을 제외한 모든 범주의 주제어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빈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감소의 추세도 급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현상은 문화정책 연구 내용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도출한 12가지의 문화정책 연구의 주제 가운데 완만하게나마 연구 추세의 상승이 나타난 것은 문화예술회관 혹은 문화예술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연구였다. 또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계량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화정책 일반에 관한 연구나 다문화정책, 지역문화축제, 문화산업정책, 영화정책 등의 연구 주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빈도가 줄어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다문화정책, 지역문화축제, 문화산업정책 연구는 급격하게 추세가 하향하고 있었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먼저 한국의 문화정책 연구는 적어도 이 연구의 대상이 된 학술지를 기준으로 후속연구세대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문화정

책의 세부 주제와 관련해서도 분석을 통해 추출된 세부 영역의 연구는 감소되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물론 연구자나 연구 주제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연구가 축적과 심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의 문화정책 연구 경향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화정책 연구와 관련된 학술적 공동체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이 연구가 드러낸 현실의 한 측면이 실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좀 더 진지하게 다양한 진단을 제시하고, 또 의미 있는 대안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연구 경향에 대한 분석 논문이 지니는 학술적인 기여는 일차적으로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가 쌓아온 업적을 확인하고 평가하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기여는 분석과 평가, 해석을 통해서 그 분야의 연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런 상황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분석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문화정책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질 행정학 혹은 정책학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질적 연구가 지닐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도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에서 문화의 우선 순위가 1990년대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진 현재의 상황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문화정책 연구가 주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다양한 영역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유효한 정책 제언을 위해 앞으로 개발하여야 할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텍스트의 확보에서 이 연구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분석 대상 연구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일부 논문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본문 전체를 텍스트 자료로 추출할 수 없었다. 초록을 텍스트 자료로 추출하거나, 일부 초록이 존재하지 않는 논문이 경우는 논문이 서론과 본론을 텍스트 자료로 삼는 등으로 최대한 분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이런 점을 인식하고 분석의 결과를 단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향후 시간을 좀 더 두고 이루어질 문화정책 경향 분석 연구가 극복해야 할 기술적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줄 지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더불어 문화정책 경향 분석 연구의 대상이 될 문화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야 할 숙제이다.

참고 문헌

- 강범일·송민·조화순(2013)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신문 자료의 오피니언 마이닝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4): 315-334
- 권경득(1996)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1967-1995)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 139-153
- 김귀영(2011) “지방의회 연구경향과 향후 연구의제에 관한 고찰”. [한국행정학보], 45(2): 83-114
- 김정수(2016) “한국 행정학 60년 문화행정 연구의 동향과 성찰”. [행정논총], 54(4): 105-139
- 박광국·채경진(2008) “문화행정 60년의 연구동향 분석”. [행정논총], 46(2): 53-76
- 박상언(2005)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방송미디어 관련 소셜미디어 콘텐츠 분석”. [한국IT서비스학회지], 15(2): 81-92
- 박자현·송민(2013)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1): 7-32
- 박주섭·홍순구·김종원(2017)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과학기술동향 및 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2(4): 19-28
- 배관표·이민아(2013) “한국 문화정책의 대상과 전략의 변화: 1988-2012”. [한국정책학회보], 22(1): 137-169
- 서순복(2013) “한국문화정책 연구쟁점의 분석과 전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0년 기고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257-273
- 윤견수(2005) “한국 행정학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언”. [한국행정학보], 39(2): 1-22
- 윤소연·윤동근(2017)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재난 및 안전관리 동향 분석”.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25(3): 75-85.
- 이병량(2004) “한국 문화정책의 변화 추이와 내용에 관한 분석: 문화예산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3): 99-125
- _____(2006) “한국 문화정책의 논리에 관한 비판적 연구: 평가준거의 구성과 시론적 평가”. [행정논총], 44(2): 25-50
- _____(2011) “한국 정책연구에서 다문화정책 연구의 경향 분석: 다문화정책 연구의 지평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한 제언”. [한국행정논집], 23(4): 1243-1262
- 이병량·황설화(2012) “정책 이념과 정책의 변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의 문화정책”. [한국정책연구], 12(3): 255-270
- 임학순(2009) “우리나라 문화정책 연구경향 분석(1998-2007)”. [문화정책논총], 21: 25-48
- 정용덕(2016) “한국 행정학 60년, 1956-2016”. [한국행정학보], 50(5): 1-15
- 주상현(2002) “한국 행정학 연구경향의 실증적 분석: 최근 7년(1995-2001)간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3): 39-55
- 채경진(2013) “우리나라 문화정책연구의 경향 분석”. [한국행정학보], 47(4): 313-344

- 최영출·박수정(2011)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5(1): 123-139
- 하태권(1995) “한국인사행정의 실증적 연구에 대한 고찰: 연구경향과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4): 1463-1483
- 한인숙(1985) “한국 지방자치행정의 연구경향”. [한국행정학보], 19(1): 1-11
- 허만형(2009) “방법론적 관점에서의 한국정책학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8(1): 29-46
- 홍형득(2015) “최근 한국 정책학 연구의 경향과 특징의 네트워크 분석: 10년(2003-2012)간 정책학회보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4(1): 27-51
- Blei, D.M. and J.D. Lafferty(2009) Topic Models, *Text mining: classification, clustering, and applications*, CRC Press
- Blei, D.M., A.Y. Ng, and M.I. Jordan(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The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Jan): 993-1022.
- Dickie, George(1984) *The Art Circle: A Theory of Art*, New York: Haven Publications
- Kim, W.J., J.H. Won, S.U. Park, and J.Y. Kang(2015) Demand Forecasting Models for Medicines through Wireless Sensor Networks Data and Topic Trend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Distributed Sensor Networks*, Vol. 2015, No.1: 1-6
- Williams, Raymond(설준규·송승철, 1984) [문화사회학(*The Sociology of Culture*)], 도서출판 까치

박상언: KAIST에서 전산학 학사 및 경영공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경기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머신러닝, 딥러닝, 텍스트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지능정보시스템, 시맨틱 웹, 의미기반검색 등이다(supark@kyonggi.ac.kr).

이병량: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순천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를 거쳐 현재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문화정책, 행정이론 등이고, 최근 논문으로 “관료의 나르시시즘 연구”(2014), “관료 나르시시즘의 원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2015) 등이 있다. 문화정책 관련 최근 논문으로는 “문화와 경제: 문화는 도시를 살리는가?”(2016)가 있다(libertas@kyonggi.ac.kr).

Abstract

Trend Analysis of Korean Cultural Policy Studies Using Text Mining

Park, Sangun & Lee, ByungR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cultural policy research in Korea since 1989 through text mining techniques. Text mining techniques, which are actively used in the field of information engineering, are known with the techniques of classification, clustering, concept extraction, sentiment analysis, and document summarization through statistical pattern learning. The analysis target of this study were limited to 283 papers related to cultural policy including the multicultural policy published in 12 journal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from 1989 to 2016.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ollow-up generations of Korean cultural policy research have not been revealed at least based on the academic journals that we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 addition, it has been found that the study of subdivisions of cultural policy extracted from the analysis also tends to decrease. Of course, in terms of diversification of researchers and research themes, the trends can be interpreted positively. Nevertheles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fact that academic research has developed through accumulation and deepening processes and the accumulation should be the base of positive effects of diversification. Text mining techniques are known to increase the objectivity of contents analysis through the discovery of statistical pattern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ose can be applied to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broader range such as administration and policy for the future research. Also, it shows that there are various research areas for the practical development of effective policies. Due to one of the technical limitations of the paper, the contents of some papers could not be extracted as text data.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uld be interpreted more carefully.

Key Words: cultural policy, cultural policy research, text mining